

서예 담긴 생명력 · 가치 탐구

‘제14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2일 개막... 40개국 작가 3000여명 참여 전시 등 다채

‘제14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오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예술회관 등 전북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비엔날레 주제인 ‘생동(生動)’은 동양의 핵심 사상이자 서예정신인 생명의식이 삶과 예술에 관통되기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송하진)는 11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한지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비엔날레를 기획했다며, 특히 한글서예 등 세계를 감동시킬 서예의 예술적 가치를 드러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의 가장 큰 특징으로 세계 40개국의 작가 3천여 명이 참가, 주한대사 29명이 참여한 전시와 국내작가 천명이 참여한 한글전인 전시 등에 전주 한지를 사용했다.

또한 20대부터 9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지닌 서예가들이 참여하는 14개의 전시행사가 진행, 국가와 장르를 넘나드는 서예의 확장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각국을 대표하는 주한대사 중 29명이 참여하는 주한외국대사서예전은 전주한지에 거칠게 표현된 세계의 언어의 다양한 서예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한글전인전시는 1,000개의 노랫말과 시를, 천년의 역사를 안고 있는 한지에 1,000명의 서예가가 한글로써 표현한 합동작품으로 만든 대형벽화를 전시한다. 이처럼 다수의 작가들이 대형 작품을 합작한 예는 그 숫자와 규모면에서 일찍이 세계서예사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이



‘제14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포스터

다.

필묵에 핀 호연지기전은 10미터 길이의 한지에 서·화작품으로 구성된 초대형 작품전으로, 중견작가들의 창성적 역량과 호연지기(浩然之氣)가 유감없이 발현됨으로써 감상자로 하여금 활기찬 생명력과 낭만적 예술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영상전시와 VR 온라인 전시 오디오 가이드 등 시대변화와 관객을 위한 맞춤형 전시 환경의 변화를 도입했다. 개최선포와 그래픽라자 발표, 학생서예전 시

상이 이뤄질 개막식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또 아날로그 시대의 유산인 서예와 디지털 첨단기술의 영상효과를 결합해 서예의 맛과 전북의 산하를 아름답게 보여 줄 디지털 영상서예전도 준비했다.

VR 전시에서는 체험존과 오디오 가이드를 만들어 일반 관람객들도 서예전시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서예문화진흥과 저변확대, 서예의 고장 전북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학술 행사, 특별전도 마련했다.

더 많은 도민과 관람객이 서예를 즐길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14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했으며, ‘서예, 전북의 산하를 말한다’ 전시가 14개 시군 지역 작가를 중심으로 동시 개최된다.

탁본체험, 나도 서예가, 서예퍼즐놀이, 서예문화 탐방 프로그램인 ‘전북 서예 유산의 길을 따라’ 등 쉽고 재미있게 서예를 접해 볼 수 있는 체험행사도 준비중이다.

마지막으로 전북서예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전북선현의 유목전, 안중근의 정신을 현대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청년 안중근을 만나다.전 서예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특별전도 열린다.

송하진 조직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서예전시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세계적인 행사로 성장하고 있다”며, “서예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다른 국가, 다른 장르와의 융합, 교류를 통해 전북서예의 세계화, 관광자원화 실현에 노력하고, 나아가 ‘한국서예’의 큰 바람을 일으키는데 서예비엔날레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천사 발대식

100여명 소리천사 15~24일 축제장 곳곳서 맡은 역할 수행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왕준, 이하 소리축제)는 지난 9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2023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천사 발대식’을 가졌다



고 밝혔다. 100여 명의 소리천사와 스태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발대식은 김희선 집행위원장의 환영사와 함께 소리천사의 선서가 이어졌다.

특히 소리천사들은 발대식을 통해 기획팀, 홍보팀, 행사팀, 무대팀, 행정팀 등 각 팀의 업무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렸다. 이들은 소리축제 기간인 오는 15~24일 까지 열흘간 축제장 곳곳에 배치돼 각 팀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소리천사는 지난 5월 1~2차 심사를 거쳐 총 100여 명을 선발, 선발된 이들은 8

월 중 오리엔테이션 및 팀별 세부교육 등에 참여해 자원봉사자로서 갖춰야 할 소양 및 정보를 습득했다.

김희선 집행위원장은 “소리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소리축제의 얼굴”이라며 “축제장을 찾는 관객, 공연을 하는 예술가, 그리고 축제를 만들어 가는 스태프 모두 즐거운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한-인니 수교 50주년 기념식서 전통예술 교류 공연

국립민속국악원, 양국 간 협연으로 의의 · 가치 더해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2023 아세안정상회의와 대한민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식에서 전통예술 교류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고 11일 밝혔다. 티켓은 오픈 하루만에 1,140여석이 전석 매진되어 객석을 가득 메웠으며, 공연 중간중간 열썬! 좋다! 등 추임새를 연발하며 박수와 함께 열광적으로 호응했다.

오르닝 무대로 인도네시아 LKB 사라스와티 가물란팀 반주에 타리 스리카를리워 민속춤을 시작으로 한국의 민속음악의 정수로 꼽는 아리랑연곡, 태평무, 삼봉사 눈뜨는 대목, 부채춤, 사물놀이 등을 선보였으며, 2부에서는 양국 간의 합동무대로 개차 등 총 120분간의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인도네시아 LKB 사라스와티 가물란 반주에 타리 스리카를리워 민속춤을 시작으로 한국의 민속음악의 정수로 꼽는 아리랑연곡, 태평무, 삼봉사 눈뜨는 대목, 부채춤, 사물놀이 등을 선보였으며, 2부에서는 양국 간의 합동무대로 개차 등 총 120분간의 무대를 선보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 방문 외국인 관광객 편의제공 협력 나선다

전북문화관광재단-전주원도심상인회-KTP, 업무협약 체결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8일 전주원도심상인회, KTP(Korea Tax free Payment)와 외국인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쇼핑관광 편의제공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사업 대상자인 전주시 고사동 원도심 일원을 시작으로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이에 각 기관은 전주 원도심 내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 및 해외 간편결제 인프라 도입에 협력하고, 향후 14개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전북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

‘김제 문화재 야행’ 성황리 열려

공연 · 전시 · 체험 · 마켓 등 8야 테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열린 2023년 김제 문화재 야행이 가을의 시작을 알리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5번째로 열린 ‘김제 문화재 야행’은 ‘달빛 풍류, 금빛 야행’을 부제로 공연, 전시, 체험, 마켓 등 8야(夜) 테마의 문화재를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가득했다.

특히 이번 야행에서는 전국 내야 건물 중 최초로 박물관 지정된 ‘김제 내야’를 비롯하여 모든 문화유산의 문을 개방함에 따라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대표 프로그램인 ‘웃음을 풀고 허심탄화하게 마음을 나눈다’는 ‘피금각’에서는 호남풍류회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이용길의 공연이 열렸으며, ‘소통과 화합’을 중요시한 우

리의 풍류정신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새롭게 시도한 김제향교 만화루에 수놓은 미디어 퍼포먼스와 라온소리중창단, 미디어 파사드는 가을의 아름다운 밤을 선물했으며, 정담장군, 해하이기 등 김제의 역사적 인물을 생생하게 들려준 ‘김제쟁쟁 이야기’와 석정 이정직의 일대기를 표현한 인형극으로 문화유산이 소재한 역사성과 지역성을 다양하게 표현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했다.

문화재 야행이 펼쳐지는 ‘김제 관아와 향교’ 일원은 1960년대까지 분정동이라 불리며 번영을 누렸던 곳이었으나, 점차 구도심지로 슬럼화가 진행되어 가는 곳이었다.



그러나 문화재 야행이 5회째를 맞이하며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시민들의 참여가 늘어나며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야행에서 눈에 띄게 변화되었던 부분은 바로 김제전통시장과의 연계였으며 역대 최대의 관람객이 불려들며 따라 전통시장 또한 활기를 띠었다는 것이다.

이에 정성주 김제시장은 “문화재가 지역민과 소통한다면 김제시 발전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김제 문화재 야행을 통한 두 가지 가능성을 보았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후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